

# 중·서 교육 패러다임의 접변과 변화\*

김 덕 삼 · 이 경 자  
(대진대학교) (경상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틀 속에서 변화하고 진화했던 중국과 서양은 19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조우하게 된다. 그러나 그 만남의 방식이 전과 달랐다. 일방적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의 사회 시스템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것이 서양식으로 탈바꿈하였다.<sup>1)</sup> 물론 서양과 동양에 대한 문화 논쟁이 있긴 했지만,<sup>2)</sup> 이론적 논쟁과 달리 현실은 속수무책으로 서양화되어갔다.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과거, 교육 패러다임은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달라졌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교육사는 인류 교육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253)

1) 예를 들어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위잉스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동양문화와 현대생활은 아마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뿐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실제일 것이다. 전자는 동양에서 수천 년간 누적되어온 옛 문화 전통이며, 후자는 최근 백여 년 사이 출현한 새로운 생활 방식인 데다가 서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의 충돌은 실질적으로 서구 현대문화가 동양의 전통문화에 준 충격과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위잉스,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 김병환 옮김, 동아시아, 2007, 13쪽.)

2) 1919년 5·4운동 이후로 1930년대, 1960년대, 1980년대에 주로 있었다.

사, 특히 동아시아 교육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를 제공했는데, 연구자는 이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측면으로 보았다. 본고에서 말하는 중국 교육 패러다임이란 중국 전통의 교육 틀을 말한다. 패러다임은 토머스 쿤(Thomas Kuhn)에게 있어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연구자는 과학 분야에서 사용한 패러다임을 교육이라는 틀에 빗대어 설명하고자 한다. 교육사에도 당시 교육계에서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모범적인 틀이 있는데, 이것이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는데, 쿤은 이를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라고 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시도 속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가 누적되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조금씩 부정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대체하지만, 이 역시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생성, 발전, 쇠퇴, 대체의 과정을 거친다. 시대에 뒤진 이론들이 폐기되어 버렸다는 이유로 해서 원칙적으로 비과학적은 아닌 것처럼<sup>3)</sup>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도 폐기되어 버렸다고 해서 비교육적인 것은 아니다.<sup>4)</sup> 예를 들어 과거제도의 원형은 지금도 존재하며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3) 토마스 S. 쿤, 『과학혁명의 구조』, 김명자 역, 동아출판, 1996, 21쪽. 과학혁명에서는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사이에는 질적인 단절이 있다. 그러므로 패러다임 사이의 우열을 말하기는 힘들다. 또한 어떤 면에서 현재 진행되는 교실 안에서의 교육은 현재의 패러다임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

4) 과학이 기술을 넘어서는 것은 기존의 관점을 뛰어 넘는 혁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그대로 교육에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쿤의 패러다임을 응용하여, 교육에서 교육 방법의 변화, 교육 목표의 변화와 같은 혁명적 변화는 어떤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더 밝혀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는 어떤 틀, 場, 관점, 패러다임, 에피스테메에 있을 때, 다른 것을 인식하기 힘들다. 이러한 것이 바뀌고 새로운 것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전의 것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해 볼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잘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 토머스 길로비치가 명명한 편향확증(Confirmation-Bias)도 이와 같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게임의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믿으려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구해서 확고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결국 패러다임이라는 이름으로 살피는 연구는 데카르트의 ‘나’라는 것을 넘어, 사회철학적이고 역사철학적인 것을 필요로 한다.

교육열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학벌열, 간판열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를 오직 시험과 시험의 결과만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바꿔 버린 것처럼, 시대에 뒤진 패러다임이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sup>5)</sup> 그래서 한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을 대신하여 들어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간적 연속성 상에서 진행되었다면, 중·서 교육 패러다임 접변 연구는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아우르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공간적으로는 서양 교육의 패러다임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동양교육 패러다임의 접변이 해당되고, 시간적으로는 중국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역사라는 측면의 것이 해당된다. 결국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시간적 변화 속에 서양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교육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된다. 반면, 서양 교육 패러다임은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다른 공간적 영향 없이 유지되며 변하였다.

본고에서 중국 교육 패러다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영향이 다른 동양 국가보다 컸고, 둘째,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孔子의 私敎育 확대, 隋代의 과거제도 실시 등이다. 셋째,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우리와의 문화적 교육적 관련성 때문이다. 중국의 교육은 경제와 달리 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벤치마킹 할 것이 적어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하여 서구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통과 儒家문화에서 파생된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미래의 잠재적 가치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우리가 溫故知新的 자세로 접근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으로 열려있다. 또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경제는 중국의 교육 중시 전통과 맞물려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본고에서는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서양 교육 패러다임과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접변에 따른 중국 교육의 변화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이것이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과거 접변 과정 속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재조명하는 것을 기

5) 金德三, 「中國 教育 패러다임의 변화-科擧制度를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第37輯, 2012년,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57-258쪽.

초로 한 본 연구는 결국 현대 중국의 발전과 맞물려 중국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될지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현재 우리의 교육 문제도 투영하여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중국 교육사에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을 알아보고, 서양 교육과 중국 교육 패러다임 접변에서의 문제점, 이에 대한 현재적 의미,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 등을 알아보았다.

## II.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중국에서 진행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 영향과 파급효과가 현존하는 단일 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 그리고 그 궤적을 놓고 볼 때,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연구자는 중국 교육사에서 중국 교육의 근간에 영향을 준 패러다임의 전환을 크게 세 가지로 보았는데, 이는 공자의 교육, 수대의 과거제도, 그리고 청말에 시작된 서양교육의 전파다. 그 근거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과 확연히 구별되는 사건이고, 둘째, 그 영향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큰 경우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공자의 교육에서 촉발된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이것은 인문정신의 완성이고, 사교육의 본격적인 시작이며, 교육의 師表이자, 중국학 문체계의 본원으로서 가치가 크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과 주변국 및 인류에 커다란 정신적 유산을 선사하였다.

공자가 활동했던 春秋시기에도, 그리고 그의 사상을 계승한 孟子와 荀자가 활동했던 戰國시기에도 많은 諸子百家들은 사회의 불평등에 대하여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사회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 공자와 그를 계승한 儒家였다. 바로 그것은 교육의 평등이라는 실천적 방법을 통해서였다. 이미 공자는 신분의 구별 없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물론 공자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았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후천적인 교육적 평등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몸소 실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당시 사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지배계층만을 위한 공교육의 틀을 깨트리는 사교육을 실행하였고, 제한된 신분의 사람에게 실시되던 불평등한 교육의 벽을 허물고 평등 교육을 실현했으며, 이를 통해 봉건사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비롯하여 漢代에 이르러 유가의 사상이 국가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고, 太學이 설치되었으며, 그 후 중국과 주변국의 정신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측면에서 공자의 교육은 공자 이전과 이후가 뚜렷이 구분되고, 영향은 시공간적으로 광범위한 것으로서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공자의 교육에 이어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과거제도를 들 수 있다. 과거제도는 수대에 시작되었지만, 과거제도가 정착되고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군 것은 수대 이후의 변화와 적응 속에서 가능했다. 과거제도는 인재 선발의 방법을 투명화하고 객관화시켜 기존의 교육 목표와 틀을 변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과거제도를 통하여 계층 간의 이동, 중앙 권력의 집중, 정치적 안정, 士人の 권력화, 유학의 獨尊, 학문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과거제도는 중국 전통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던 중요한 요소로서 130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였다.<sup>6)</sup>

과거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관리선발제도로 중국과 주변국에 존재하였다. 그러면서도 장점 못지않게 문제점도 지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선발제도로써 갖는 장점이 컸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明末이후에는 유럽에도 소개되었고, 서양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sup>7)</sup>

6) 金德三, 「中國 教育 패러다임의 변화-科擧制度를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第37輯,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 259쪽.

7) 예를 들어, 과거제도를 접한 서양인은 과거제도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회제도라고 평가했다. Paul F Cressey, 「科擧制度在中國文化發展上之影響」, 『師大史學月刊』1卷 1期, 雷震 역, 1931년 6월. 그리고 우드사이드의 경우도 궁극적으로 과거제의 우수함을 강조하였다.(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잃어버린 근대성들』, 너머북스, 2012)

1300여 년이라는 시간을 유지해온 과거제도는 중국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안정은 안일과 안주에 머물러 세상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다. 반면 서양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었고, 1789년에 발발한 프랑스 혁명으로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확립하고 평등한 권리를 찾는 문제를 확인 할 수 있었다.<sup>8)</sup> 여기서 비롯된 경제와 사회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서양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프랑크(Frank, Andre G)는 서양이 동양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 1815년 정도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유럽은 아시아 경제라고 하는 열차의 3등 칸에 달랑 표 한 장을 끊어 올라탔다가 얼마 뒤 객차를 통째로 버리더니 19세기에 들어서는 아시아인을 열차에서 몰아내고 주인 행세를 하는 데 성공했다”고 비판하고 있다.<sup>9)</sup> 이언 모리스(Ian Morris)의 경우도 “서양은 빙하기 말에 기선을 제압했지만……550년경 서양의 우위는 완전히 사라지고, 다음 1200년 동안 동양이 사회발전을 주도했다”고 말하고 있다.<sup>10)</sup>

결국 서양은 발전된 변화를 응집하여 기독교의 선교활동, 제국주의의 무력, 자본주의의 교역으로 중국과 주변국에 접근했다. 과학과 민주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힘 이것은 오랫동안 체제를 유지해왔던 중국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민주라는 제도는 기울어가는 청 왕조를 타도하고 제거하는데 매력적이었고, 과학이라는 무기는 오랫동안 중국을 지배해온 봉건사상, 유교의 악습과 그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 속에서 소외받던 여성의 지위와 하층민의 삶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전에 없던 하나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사실 서양 교육 패러다임의 수용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은 서양의 교육 자체에 있기보다, 물질적으로나 국방력에서나 서양이 앞서 있었다는 본질적 사실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미 산업혁명

8) 서양의 발전 동인을 보는 관점과 견해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黃仁宇는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중국의 21세기』에서 14세기 이후 중요한 세계사적 변화는 자본주의와 관련된다고 말했다. 현대 사회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부상 등도 같은 선상에 있다. (黃仁宇, 『자본주의의 역사와 중국의 21세기』, 이재정 역, 이산, 2001)

9) 안드레 군더 프랑크, 『리오리엔트』, 이희재 역, 이산, 2003.

10) 그러므로 이언 모리스도 서양이 동양보다 앞선 시기를 1750년경으로 보고 있다. 이언 모리스,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글항아리, 최과일 역, 2013, 769쪽.

이후 발생한 혁명적 발전과 중국의 오랜 안정 속에 비롯된 정체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 서양 교육의 수용에 따른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떠한가? 현재까지 중국에서 사용하는 교육 패러다임은 주로 산업혁명 이후 서구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었고, 지금도 그 영향권 안에 놓여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귀족계급과 다른 시민사회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을 위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물론 이것은 고급문화적 관점에서 본 것처럼, 귀족사회로부터 대중문화라 천대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여 인류 발전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한 시민사회는 자신의 후손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이것은 대중적인 교육의 확산을 가져옴과 동시에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당시 교육 패러다임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고, 이를 통해 산업사회에 맞는 기능인을 순조롭게 배출하면서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첫째, 산업혁명 시기에 만들어진 지식과 매뉴얼을 중심으로 하는 암기 위주의 교육이 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刻舟求劍의 상황이다. 둘째, 원래부터 서양적 교육이었기에, 중국화하여 수용하든지, 혹은 중국적 방식을 개발하여 대체했어야 했다. 그러나 일방적 수용 속에 지속적인 부적응과 안착이 힘들었고,<sup>11)</sup> 오늘날 학문적 종속이 더 심해졌다.<sup>12)</sup> 이제 이러한 문제가 더 커졌지만, 반면에 자각

11)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동양과 서양은 다른가? 리처드 니스벳은 『생각의 지도』에서 실험에 입각하여 동양과 서양의 다른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동양의 더불어 사는 삶, 서양의 홀로 사는 삶, 전체를 보는 동양과 부분을 보는 서양, 동사를 통해 보는 동양과 명사를 통해 보는 동양, 경험을 중시하는 동양과 논리를 중시하는 서양 등이다.(리처드 니스벳, 『생각의 지도』, 최인철 옮김, 김영사, 2005). 구리야마 시게히사도 『몸의 노래』에서 동양과 서양의학의 차이를 언급했다. 서양은 근육에 동양은 경락에 고정되었던 시각의 특별한 영향력(문화적 특수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구리야마 시게히사도, 『몸의 노래』, 정우진 권상욱 옮김, 이음, 11쪽, 2013) 그러나 더 소급해 고대로 올라가면 그 차이점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했다.(12쪽) 이점에 대하여 『장자』는 입장의 차이를 말했다. 즉, 같다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도 같고, 다른다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것도 다르다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어떤 입장에서 보는가의 문제에 있다.

12) 한국의 경우 이런 예를 볼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있었다. 2013년 11월 30일

의식도 싹트고,<sup>13)</sup> 또한 중국을 포함하여 동양의 경제적 지위가 좋아지면서 자신들의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 여지가 생겼다.

### III. 접변의 문제점 및 전망

서양 교육 패러다임의 전파는 궁극적으로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중심이었던 과거제도를 폐지시켰다. 과거제도에 이어 등장한 서구식 학교는 또 하나의 학벌을 만들어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고, 기존에 과거제도를 준비하던 지식인 층을 변화시켰다. 과거제도의 폐지는 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많은 충격을 주었지만,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과거제도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당시 시대의 변화도 과거제도 폐지 쪽으로 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식 교육으로 평등의 개념이 확산될 수 있었지만, 향촌의 士人들과 전통적인 권력기반이 위축되었다.

그렇다면 중·서 교육 패러다임 접변과 접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을까? 왜 중국의 전통 교육은 일순간 서양교육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을 내적 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적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중국의 오랜 안정기는 낡은 것에 대한 혁명적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로 받은 '거점국립대 교원 박사학위 취득 국가 현황' 자료를 근거로 밝힌 서울대의 미국 박사 학위 교수는 전체 1천 902명의 교수 중에 959명(50.2%)에 해당하여 다른 국가 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참고적으로 국내 박사학위는 657명(34.5%), 독일(63명), 영국(50명), 일본(43명), 프랑스(36명)순이다. (연합뉴스 2013년 10월 30일 보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서양 선진국 특히 미국 편중이 심하다. 학문이나 문화의 편중을 우려하게 되는 대목이다.

13) 위잉스는 이점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완벽함을 갖춘 구체적인 서양의 현대생활을 찾을 수 없으며 단지 참고하기에 충분할 뿐이다.”(위잉스,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 김병환 옮김, 동아사이아, 2007, 23쪽)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경직된 세계관을 교착시키고, 중국을 섬나라처럼 고립시켰다. 교육도 낡은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개혁과 변신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그 사이에 부조리한 부산물만 쌓여갔다. 이런 것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일순간 폭발하게 된 것이다. 반면 서양은 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전기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일본도 다른 동양에 비해 빨랐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족의 왕조인 만주족이 세운 청왕조를 바꾸려는 시도가 내적으로 일어났고 이는 전통의 부정과 연계되었다. 예를 들어, 魏源이나 章炳麟같은 漢族 학자는 청나라를 부정하며, 만주족을 물리치고 한족의 국가를 건설하자고 했다. 이러한 것은 왕조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다. 권력을 잡고 있는 자와 잡으려고 하는 자의 투쟁에 더하여 침략자와 피지배자와의 관계가 더하여 진 것으로 그 영향과 파괴력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컸다. 당연히 백성들의 동요와 변화의 정당성에 대한 이유는 다양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당시 서구 열강이 가지고 있던 제국주의적 침략 분위기는 나약한 중국을 자학하는 계기로 다가와 청왕조에 대한 체제 부정을 더 가속화 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내적으로 서양 교육 패러다임의 능동적 수용이 진행되었다.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서 서양의 교육 패러다임을 공부하거나 익힌 중국인들이 속출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에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蔡元培, 胡適, 竺可楨, 梅貽琦, 張伯苓, 陶行知 같은 교육가들이 탄생하였다. 그러면서, John Dewey나 Russell같은 서양의 학자를 중국으로 초대하여 배우거나, Johann Friedrich Herbart, Maria Montessori, Paul. Monroe 등 서양의 교육이론을 중국에 정착시키려 노력하였다. 또한 평민교육사상, 국가주의 교육사상, 교육독립 사상, 민주주의 교육사상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사상이 등장하기도 했다.<sup>14)</sup>

반면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인 신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신문화운동은 1915년에 진독수, 노신, 이대교, 호적 등에 의해 창간된 『新青年』에서 시작

14) 김덕삼, 「중국 근·현대 대학 변화의 사상적 기초」, 『중국학논총』 30권,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0, 242쪽.

되었다.<sup>15)</sup> 『신청년』을 통하여 儒敎에 대한 비판, 白話運動의 전개, 여성해방, 대가족제도에 대한 반대를 선전하고, 낡은 사상을 버리고 새로운 사상으로 자각된 청년만이 조국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유교에 대한 비판은 봉건사회의 정신적 기반과 틀을 비판하면서 교육체제의 변화를 유도했고, 지식인이 독점해 온 文語文에 반대한 백화운동은 문학을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하여 계몽과 지식보급을 이끌어 궁극적으로 민중교육을 조성하였다. 또한 여성해방은 남녀평등교육권의 쟁취를 위한 강렬한 열망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920년 여름 북경대학은 처음으로 여학생을 선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19년에 발발한 5·4운동에 응집되어 나타났다. 5·4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신학제의 실시, 외국유학생의 증가, 외국 사상의 유입, 백화운동을 통한 교육보급, 민족산업의 발달 등은 반봉건, 반군벌, 반제국주의의 성격으로 발전한 5·4운동의 동력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비폭력운동이자 전민중적 운동이었던 5·4운동을 통하여 구시대적 윤리와 도덕을 타파하고 민주와 과학을 발전시키는 신문화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5·4운동 이후에는 봉건주의의 복고사조를 철저히 비판하면서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인 신민주주의의 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sup>16)</sup> 이를 통해, 중국의 교육은 수천 년 내려오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였다. 封建禮敎를 타파하고, 부녀자와 여성교육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교육 평등권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외적 이유를 찾아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분된다.

첫째, 강압적 방법으로서,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과 교류 속에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러시아에게 15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할양한 것이나, 九龍반도를 포함한 홍콩이 1842년부터 영국의 식민지가 된 것이나, 승전국에게 엄청난 전쟁배상금을 지불한 것, 외국인 거주자에게 중국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국의 영사 재판장 정당화 될 수 있었던 것, 上海, 天津, 漢口, 廣州 등 일부 지역이 租界가 되었던 것 등이다.<sup>17)</sup>

15) 1915년 9월 상해에서 창간할 때는 『青年雜誌』였으나, 1916년 9월 『新青年』으로 개명하였다.

16) 김덕삼, 「민국시기 고등교육의 변화와 의의」, 『教育問題研究』 33집,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9, 135쪽.

17) 알랭루, 『20세기 중국사』, 정철웅 옮김, 책과함께, 2010, 21-22쪽.

그 중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1840년에서 1842년 사이에 영국과 치른 아편전쟁, 미국과 1844년 에 맺은 望廈條約, 프랑스와 맺은 黃埔條約을 통해서 서구 열강은 중국에서 선교사의 전교와 교육활동을 허가받았다. 특히 미국과 1868년에 맺은 浦安巨條約의 제 7항을 보면 미국인은 중국이 지정하는 장소에 학당설립이 가능하고, 중국 역시 미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sup>18)</sup> 이처럼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제국주의는 강압적 방법을 통해 중이호랑이가 된 청나라의 교육 문호를 개방시켰다.

둘째, 기독교의 영향이다. 중국에서의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선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특히 고등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앞서 언급한 조약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서구 열강은 중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선교활동을 보장 받게 되었다. 비록 교회대학이 중국 고등교육사에 등장한 기간이 짧고, 그 수도 적지만, 교회대학은 중국 근·현대사의 중국 고등교육기관과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sup>19)</sup> 중국 근대사는 과거제도의 폐지, 서구 열강의 침입, 서구식 교육제도의 정착, 새로운 정치체제의 시도와 같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고, 그 속에서 교회대학은 중국의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방면에서 발전된 이론과 모델을 직·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전파하면서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했다.<sup>20)</sup>

18) 洪拓夷, 「清末教會大學對我國高等教育的積極影響」, 『湖州師範學院學報』 第28卷 第4期, (湖州: 湖州師範學院, 2006), 116쪽에서 재인용, 王鐵崖, 『中外舊約章匯編』, (北京: 三聯書店, 1957) 참조.

19) 교회대학을 언급하며, 중국인 또는 정부에 의해 설립된 대학을 별도로 묶어 중국 대학 또는 중국 고등교육기관으로 칭하였다. 이러한 구분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중국에서의 관례와 교회대학에 대한 논의의 집중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했다. 이것은 교회대학을 서구 제국주의 침략물로 보는 견해와 관련이 깊다. 그래서 중국내의 많은 자료들에서는 지금까지도 교회대학을 제외하고서 중국인 혹은 정부가 세운 대학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최초의 대학을 언급하면서 北京大, 天津大, 武漢大 혹은 湖南大 등을 거론하지만, 이들보다 먼저 설립된 교회대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20) 선교사들의 전략적 선택이 교회대학 설립에 기여하였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1877년 5월 상해에서 첫 번째 대규모 모임을 개최하였고, 이어서 1890년 5월에 2차 모임을 개최하였다. 1차 모임에는 29곳의 Mission과 126명의 선교사가 참여하기도 했는데…… 선교사들의 논의와 연구를 거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적 선택에 따라

내적 외적 원인 외에도 다른 여러 변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진행된 러일전쟁과 1937년 일어난 중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중국의 자존심을 벼랑 끝으로 떨어트리고, 일본의 저력이 뭉치 않게 하였다. 그리고 일본 저력의 원인을 서구 문명의 수용에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특히 러일전쟁의 결과는 청과 전통문화의 붕괴를 가속화 시켰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청과 전통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 말기의 무능하고 안일한 통치 권력과 악습만 남은 왜곡된 전통에 있었지만, 모두 도매금으로 일괄 타결되었다. 러일전쟁의 일본 승리로 유럽의 적극적인 아시아 진출이 주춤하고, 중일전쟁의 일본 승리로 중국 지식인과 지도층은 자존심이 아닌 패배주의와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내적, 외적 원인과 변수 속에서 중국의 교육 패러다임은 서양의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첫째, 수 천년 내려온 전통 교육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는 점, 둘째, 짧은 시간에 완전히 새로운 틀로 전면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 셋째, 자발적이거나 능동적인 면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극히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孫曉樓는 민국 당시의 대학 교육이 중국의 本位를 망각하고, 物資의 발전에만 편중되어 있으며, 이론에만 치중하고, 끝으로 인격 도야를 홀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21)</sup> 또한 王冀生은 “5·4신문화운동에서 ‘공자에 반대하고 儒學을 비판하던’ 것과 1937년 이후 중국이 처해 있던 전시상태의 혼란으로 인하여 ‘공자의 유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윤리도덕의 본위로 삼은 교육이상을 현대화와 결합시켜 중국대학의 이념을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교육을 창건하는 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유감이다”라고 비판

---

설립되었다. 첫째, 교회학교 관계자들이 초·중등 학교에서 중국의 절대적인 학교 수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고등교육에 집중하였다. 둘째, 중국 사회를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할 경우 선교가 수월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중국인과 중국 사회가 서양문화에 대하여 갖는 높은 관심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 즉 교회대학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김덕삼, 「중국 교회대학의 발전과 교육적 영향」, 『中國研究』 47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9, 312쪽.

21) 李均, 『中國高等教育研究史』,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5, 57쪽.

하였다.<sup>22)</sup> 그러나 제국의 침략과 전통 봉건사회의 몰락에서 오는 혼란은 이러한 비판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다.<sup>23)</sup>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것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없이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을 포함하여 동양사회에 이미 ‘익숙한 우리의 것’이 되었다. 또 하나의 만들어진 전통이 되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만들어진 전통과 다르지만.<sup>24)</sup>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포클랜드와 같은 일로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180년 전 영국에게 빼앗긴 포클랜드를 돌려달라고 하지만, 영국은 포클랜드 주민들이 영국령을 원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180년 동안 포클랜드가 영국 문화에 길들여졌던 결과다. 조작된 출발이 의도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다. 이러한 경우가 인류 역사에는 비일비재하다.<sup>25)</sup> 하나의 문화를 제거하는 것은 강력한 힘과 충분한 시간 속에 진행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알아본 것을 기초로, 서양 교육으로의 전환은 중국 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에 대한 종합적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서양 교육의 수용 이후 중국의 변화는 개선되기보다 지속적으로 서구 종속적 형태를 지녔는지 모른다. 이는 전통 교육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전통 교육의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명확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5.4운동 기치로 내걸었던 과학과 민주, 과연 과학과 민주를 올바른 처방이었는지,<sup>26)</sup> 과연 전통 교육의 토대 위에 접

22) 王冀生, 『大學理念在中國』, 高等教育出版社, 2007, 5쪽.

23) 김덕삼, 「민국시기 고등교육의 변화와 의의」, 『教育問題研究』 33집,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9, 142-143쪽.

24)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이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과 다르다. 에릭 홉스봄 외, 『만들어진 전통』, 박지향 외 옮김, 휴머니스트, 2004.

25)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소수민족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김덕삼, 「中國 少數民族 文化接變 樣相의 變化: 回族과 彝族의 文化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9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2.

26) 5.4운동 당시 서양의 민주와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았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끊임없는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위잉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5.4운동 이래 제창된 ‘민주’와 ‘과학’의 영역으로 말하자면 서양의 성취가 확실히 앞서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범이 된다. 그러나

진적 변화를 진행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 IV. 변화 가능성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은 과거 진행된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부각되는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패러다임 변화 당시의 문제점과 달리, 현재적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한다.<sup>27)</sup>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다.

먼저, 현재 중국 교육에 대한 반성이라는 현실적이고 시대 요구적인 문제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경우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여기와 지금의 문제가 되었을 때로서 변화의 강력한 동인이 된다. 중국 교육에 비취보면 바로 현재 시행되는 중국 교육의 폐단과 문제점의 부각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될 것은 본고에서 시도했던 서양 교육 패러다임과 전통 교육 패러다임과의 접변 과정에 대한 반성, 서양 교육에 대한 회의와 전통 교육에 대한 피드백 과정일 것이다.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에서 余英時は “오늘날 서양의 위기는 동적이면서 정적이지 못하고, 발전은 있지만 그침이 없고, 부유하지만 편안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안정됨이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sup>28)</sup> 서양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도 산발적으로

---

현대 서양문화의 기본 내용은 결코 이 두 가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발전한 개인주의, 끝없는 이익 추구, 나날이 번잡해지는 소송제도, 노인을 경시하고 아동을 학대하는 사회 풍조, 긴장하고 충돌하는 심리상태 등의 예는 다른 비서양권 사회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양인 스스로의 깊은 반성을 일으키고 있다.”(위잉스,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 김병환 옮김, 동아시아, 2007, 23쪽)

27) 교육 패러다임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黃仁宇는 21세기에 자본주의가 중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黃仁宇, 『자본주의의 역사와 중국의 21세기』, 이재정 역, 이산, 2001.

28) 위잉스,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 김병환 옮김, 동아시아, 2007.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중국 교육의 폐단과 문제점의 부각과 맞물려 진행된다면 그 파장은 탁상공론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중국적 교육 패러다임의 발굴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교육 패러다임의 원형은 서양의 것이고, 이것은 산업혁명시기에 형성된 틀에서 기인한다. 산업혁명에서 발생한 교육 패러다임의 특징은 사회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지식과 매뉴얼을 익히고 암기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화, 민주화, 세계화라는 21세기의 메가트렌드를 비롯하여, 지식의 양이 급속히 증가하고, 전자 기기와 인터넷의 발달이 가속화되어, 창조, 순발력, 협업, 기회 포착, 실행 등이 중요한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서로 융합하여 매우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발전은 과거에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고 교육도 이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어쩌면 많은 교육 관련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럼, 전통의 단절과 서구 문화의 이식 속에 자리 잡은 중국의 현 교육 패러다임은 어떤 식으로 변화될까? 여기에 대하여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과 연계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제력. 중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 교육 패러다임 연구와 중국 교육 문제 해결에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GDP 규모 세계 2위, 3조 4000억 달러를 보유한 달러 최대 보유국, 세계 500대 기업으로 73개를 보유한 세계 2위 등의 화려한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2010년 세계 자동차 제조 1위, 조선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문화계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세계 예술품 시장에서 39%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다. 피카소보다 중국의 화가와 그림 값이 더 높은 것은 이제 자연스럽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교육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sup>29)</sup> 그리고 교육 발전은 중국의 사회 발전을 유도하며 선순환의 구조를 지니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축적된 교육적 저력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탄생을 유도할 것이다.

둘째, 국제 지위의 향상.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중국의 국제 지위 향상

29) 중국을 찾는 유학생 수와 국가의 증가, 해외 인재 유치의 증가, 중국 대학의 평가 순위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은 과거 중국이 주변국과 인류에 기여했던 교육의 영향을 상기하며, 중국적 해법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지금도 서양문명의 영향 속에 동양문명은 그 몫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훌륭한 전통 문화 유산과 그 업적도 서양문명의 우월함에 잠식되어 버렸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중국을 포함한 동양문명의 우수함을 발굴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연구하고 이를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문화저력과 자부심. 중국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사실 그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것이 하드파워(Hard Power)를 넘어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軟性權力的 증강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이다. 연성권력에서 중요한 동인이 되는 교육 지식에 대한 재인식, 서구 문화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전통문화에 대한 회복 및 개발이 근거가 되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출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교육의 문제. 현재 진행되는 중국의 서양 교육 패러다임 하에서의 각종 문제점 발생과 해결 방법 및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진행될 것이다.

다섯째,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중국은 다가올 중국의 시대에 과거처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력과 다른 능력이 맞물려 교육에서도 지난 과거 인류 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을 포함하여 유가문화권의 국가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았다. 아래 표는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가명	핀란드	한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위의 표는 세계 최대의 교육 기업 피어슨이 처음 실시한 ‘세계 교육강국’ 연구조사 순위다.<sup>30)</sup> 순위를 보면, 한자문화권의 국가 중에 경제적으로 발전한

30) 전 세계 초·중·고 교육 시스템 평가 보고서인 ‘글로벌 리그테이블’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학·과학·언어 등 기초 학력 성적, 의무교육기관 졸업률과 대학 진학률,



한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가 상위에 들었다. 다시 말해, 한자문화권이자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들이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이다. 이로써 중국 역시 경제적 발전이 확산되어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교육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과거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

## V. 나오는 말

이상으로 중국 교육 패러다임과 서양 교육 패러다임이 만나서 변화하게 된 과정을 고찰하고, 그 과정 속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문제점이 현대 교육 문제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생각하며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서양 교육의 전파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전과 달리, 서양과 동양의 공간적 충돌에서 비롯되었고, 더하여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였다. 제국주의 침략 야욕, 기독교의 전파와 교육 선교, 만주족의 오랜 봉건 통치에 대한 국내적 반발, 새로운 체제와 지식에 대한 지식인의 갈망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한 곳에 작용하여, 수천 년 내려온 전통 교육에 대한 깊은 반성의 과정 없이 단시간에 이질적인 서양의 교육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 경제의 성장, 서양식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 서구화 과정에 대한 반성, 전통에 대한 재발견, 중국 연성권력의 강화 등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을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중국과 비슷한 변화 과정을 거친 한국으로서 우리의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

교육예산과 교육비 규모, 교사·학부모의 교육관 등을 종합 평가했다. 조선일보, 2012년 11월 28일, A2면. 피어슨의 교육담당 최고고문 마이클 바버경은 BBC인터뷰에서 “상위권 국가의 특징은 첫째, 교사들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둘째, 고유한 ‘교육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교육예산과 교육비 규모는 학생들의 교육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교사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는 학생의 성적과 비례하지 않았다.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사회에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과거보다 빈번히 제기되는 것은 교육과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심해진다면 이것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전조 현상일 수도 있다.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 경제적 업적을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으로까지,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과 사회적 변화의 상관적 관계 분석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현대 중국 사회의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웃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를 비롯하여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듯이, 교육 패러다임과 관련된 문제도 머지않아 자신들의 입장에서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중국 교육 패러다임을 단순히 국가 개념으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 즉 한자 문화권 또는 유가 문화권, 혹은 동양 문화권으로 접근하게 되길 희망한다.<sup>31)</sup> 왜냐하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해 각국의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고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동양문화의 가치를 공론화하는 효과를 발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범주 안에서의 다각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 발생한 교육 패러다임을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연동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를 앞으로 보완하려 한다. 물론, 우리의 입장은 보다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미래 주장에 대하여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서구화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적, 어쩌면 중국적인 시각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31) 이러한 측면에서 조동일 교수의 ‘공자를 중국적인 것만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아시아적 인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언을 상기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이 중화사상으로 빠져, 주변국에 부담과 위협의 존재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철학의 개념에서 서양철학이라고 언명하여 서양의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표시한다. 반면, 서양인들은 “유럽사나 유럽문학사에서는 동일한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역사나 문학은 유럽에만 있다고 하지는 않으면서 철학만은 유럽의 독점물이라고 한다. 이치를 바르게 따진다는 철학에서 유럽의 독선을 표명화했다. 그것은 다른 문명권에 대한 야유나 도전이다.” (조동일, 『동아시아 문명론』, 지식산업사, 2010, 347쪽.)

말이기도 하다.

## ❖ 참 고 문 헌

- 구리아마 시게히사도, 『몸의 노래』, 정우진 권상옥 옮김, 이음, 2013.
- 金德三, 「민국시기 고등교육의 변화와 의의」, 『教育問題研究』33집,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9.
- 金德三, 「중국 교회대학의 발전과 교육적 영향」, 『中國研究』, 47권, 한국외국어 대학교 중국연구소, 2009.
- 金德三, 「중국 근·현대 대학 변화의 사상적 기초」, 『中國學論叢』, 第30輯,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0.
- 金德三, 「中國 少數民族 文化接變 樣相의 變化: 回族과 彝族의 文化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9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2.
- 金德三, 「中國 教育 패러다임의 변화-科學制度를 중심으로」, 『中國學論叢』第37輯,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
- 김충열, 『중국철학사』, 예문서원, 1996.
- 리처드 니스벳, 『생각의 지도』, 최인철 옮김, 김영사, 2005.
- 안드레 군더 프랑크, 『리오리엔트』, 이희재 역, 이산, 2003.
- 알랭루, 『20세기 중국사』, 정철웅 옮김, 책과함께, 2010.
-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잃어버린 근대성들』, 너머북스, 2012.
- 에릭 홉스봄 외, 『만들어진 전통』, 박지향 외 옮김, 휴머니스트, 2004.
- 위잉스,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 동아시아, 2007.
- 李庚子, 『중국 고등교육사』, 한국학술정보, 2008.
- 李庚子, 「한중 고등교육 교류의 현황과 과제」, 『中國學論叢』, 第41輯,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
- 이언 모리스,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최과일 역, 글항아리, 2013.
-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지식산업사, 2010.
- 토마스 S. 쿤, 『과학혁명의 구조』, 김명자 역, 동아출판, 1996.

- Paul F Cressey, 「科學制度在中國文化發展上之影響」, 『師大史學月刊』1卷 1期, 雷震 譯, 1931년 6월.
- 黃仁宇, 『 자본주의의 역사와 중국의 21세기』, 이재정 譯, 이산, 2001.
- 高時良, 『中國教育史綱』, 人民教育出版社, 1993.
- 曲士培, 『中國大學教育發展史』, 北京大學出版社, 2006.
- 霍益萍, 『近代中國的高等教育』,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9.
- 能明安 主編, 『中國近現代教育改革史』, 重慶出版社, 1999.
- 毛禮銳 沈灌群 主編, 『中國教育通史』(第二卷), 山東教育出版社, 1986.
- 蘇曉環, 『中國教育 改革與創新』, 伍洲傳播出版社, 2002.
- 王鐵崖, 『中外舊約章匯編』, 三聯書店, 1957.
- 汪一駒著, 梅演生 譯, 『中國知識分子與西方』, 台北, 1987.
- 李先國 正一定, 「試論中國的教會大學的辦學經驗及其啓示」, 『湖南第一師範學報』, 湖南第一師範, 2002年 第4期.
- 洪拓夷, 「清末教會大學對我國高等教育的積極影響」, 『湖州師範學院學報』第28卷 第4期, 湖州師範學院, 2006.
- 연합뉴스, 2013년 10월 30일.
- 조선일보, 2012년 11월 28일.

❖ ABSTRACT

## Acculturation and Educational Paradigm Shift of China for Western Educational System

Kim dug sam · Lee kyung ja

This research start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changes of educational system in China which had been caused by accepting western educational system in the late Qing Dynasty and the early Republic of China are indeed considered as a paradigm shift of educational system in China, This research aims first to investigate what kinds of problems and changes Chinese educational system confronted at that time and second to examine what kinds of implications such changes and problems of paradigm shift may have today in China.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this research, I first researched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paradigm shift occurred in the history of China. On the basis of those findings, I tried to analyze acculturation problems of Chinese educational system for that of western countries at that time, their implications in present time Chinese educational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further paradigmatic shift in present Chinese education.

In this paper, I assumed three historical paradigmatic shifts in educational system in China which had big influences on the foundation of Chinese education,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onfucian Thoughts, the introduction of Civil Examination System in Sui Dynasty, and lastly the introduction of western educational system in the late Qing Dynasty.

The last paradigmatic shift occurred by the introduction of western education system into China was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two paradigmatic shifts in China in that it was literally initiated by the world with cultures different from those of China, and that's why it is called Spatial Collision. It was also one of the many changes China had been forced to confront unvoluntarily. It was done for many other complicated factors such as the greed of western imperialistic countries, spreading of Christianity and missionary education, domestic resistance against long feudal reigning of Qing Dynasty, and lastly the intellect's

eagerness for new knowledge and new ways of thinking.

What is surely regretful for the paradigmatic shift of Chinese educational system was that it had been triggered by those many heterogeneous factors, thereby leading to such a sudden, entire and complete shift of Chinese education system. In addition, it was done without a deeper and further consideration of Chinese education system with thousand years of tradition.

This situation could be understood to be an impetus strong enough to encourage the advent of a new paradigm propelled by rapid economic growth of China, many problems of western education system, reconsideration of Chinese tradition, and strengthening of women power in China, etc.

---

**Key Words**

중국 교육, 서양 교육, 교육 패러다임, 근현대사, 교육사

Education Paradigm, China education, Western education, traditional education, Qing Dynasty, Modern Times

논문접수일: 2013. 11. 10

심사완료일: 2013. 12. 06

게재확정일: 2013. 12. 12